
기후 위기와 건강 불평등

: 건강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능성

변혜진*

초록

기후 위기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며 건강의 위기가 되고 있다. 집중하는 기후 재난은 지역과 사회계층에 따라 극적으로 불평등한 충격을 가해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 글은 건강과 환경의 위기가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건강 정의 이론을 모색한다. 건강 정의 이론은 건강을 변화하는 자본주의 체제 모든 계급 관계 속에 스며든 쟁점으로 사고할 것을 제안하며 건강을 사전 결정된 사회적 경계 안에 가두는 이분법에 도전할 것을 요구한다. 불평등을 만드는 '원인의 원인'을 구체화하고 건강 불평등 담론에서 사라진 자본의 실체를 복원하는 정치성을 강조한다. 건강 정의 운동은 상호의존의 존재들이 수행하는 복수(複數)의 권리 투쟁이며, '공거(共居) 윤리'를 통한 혼종 공동체의 가능성을 지향한다.

주제어: 기후 위기, 불평등, 건강 정의, 생태사회 이론, 공진화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unoccupy@gmail.com)

투고일 2023.1.11./ 수정일 2023.2.15./ 게재확정일 2023.2.21.

I. 들어가는 말 : 기후 위기는 건강의 위기를 만든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현실 인식이 불가피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때다. 팬데믹을 지나온 세계는 전쟁과 파시즘, 불평등과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극단의 시대’를 변주 중이다. 기후 위기는 이 모든 위기를 아우르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마이크 데이비스(2020)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들이 복합적 존재로서 인류의 진화를 가능하게 한 생태학적 적소(適所)를 급격히 파괴하는 중이며 “인류의 진화 자체가 새로운 궤도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의 다른 병적 징후들과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는 건강의 위기로 이어진다. 기후 재난은 사회·경제·환경 위협의 규모와 강도 모두를 증가시킨다. 생존을 위한 개인의 권리가 파괴되고, ‘생태불안’과 ‘기후우울증’ 등 정신심리적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 1차 방어선이 되어야 할 의료체계는 더 무력해지고, 생계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은 취약한 이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이중고의 원인이 된다(Berry, Bowen, & Kjellstrom, 2010; Rmanello et al., 2021).

사회계급과 취약성의 조건에 따라 더 극적으로 불평등한 충격을 가하는 기후 위기는 ‘모든 이들의 건강’이라는 목표를 침수시키는 중이다. 건강 정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됐다.

II. 기후 위기의 원인과 불평등 : 환경과 인간의 이분법에서 변증법적 이해로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건강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

후 및 생태는 인간 안녕(well-being)에 스며든 모든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조효제(2020)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성은 기후 과학의 “탈인간화” 맥락에서 비롯된다.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의 모든 변화로 다루어지던 전통적 기후 과학이 인간 통제 대상으로 환원되면서 수량화와 모델링을 통해 인간을 기후 전체 그림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엘리트 과학화”와 환원주의적 방법론들은 ‘인간’과 ‘환경’이 상호 ‘고립된 구획’에 존재해 왔다는 잘못된 이분법에 기대어 있다. 환경운동가 레이첼 카슨(2018)은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려고 애썼다. 카슨은 여러 저서를 통해 인간은 다른 수천 종들의 생명과 함께 진화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환경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왔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리처드 레빈스와 리처드 르윈틴(2007)은 ‘환경’을 유기체 외부가 아니라 유기체 발달 과정 내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씨앗이 비가 흠뻑 내린 후에 발아할 때 씨앗은 단지 조건이 적합하다는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비는 씨앗 내부에 있는 단백질만큼이나 씨앗 발달의 한 요인”이다(Levins, & Lewontin, 2007). 레빈스와 르윈틴(2007)은 생명체와 환경은 상호/공동 결정되며, 공진화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종과 지구 환경 내 모든 종은 매 순간 그것이 서식하는 생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상호 변화시키는 변증법적 과정에 있다. 존 벨라미 포스터(2010)는 생태적 위기 역시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파악하는 데 중심축이라고 설명한다. 포스터는 기후 위기의 본질을 자본주의 ‘신진대사의 균열’로 정의한다. 자본의 증식이 인간과 “인간의 비유기적 신체인 자연”의 착취를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이다(카를 마르크스, 2006). 자본 축적의 순환 과정은 동시에 인간과 세계의 소외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은 서로를 완전하게 만드는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 된다.

‘인간중심주의 대 생태중심주의’와 같은 구분은 사실 텅 빈 추상에 불과하다. 이런 텅 빈 추상은 종종 기후 위기의 원인을 ‘과잉 인구’ 탓으로 돌리는 주장에 비판적 견지를 잃게 만들기도 한다. ‘과잉 인구론’은 지금보다 언제나 ‘적은 인구’를 가정하고 마치 인구가 적어지면 자연과 인간이 균형 잡힌 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묘사한다. 하지만 맬서스의 『인구론』에 기초한 과잉 인구론은 현실에서 증명된 적도 없으며, 불평등과 굶주림, 식민지 전쟁 등 자본주의의 모든 악행을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왔다. 사회변혁 사상을 억압하기 위해 지배계급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론이기 때문이다. 건강 정의 이론은 ‘더 적은 인구’라는 가설, 즉 누군가 나서서 인류를 선별해도 된다는 우생학적 서사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조악한 ‘인간 혐오’나 ‘총체적 녹색 건강 불평등’은 더 나은 세계의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Ⅲ. 기후 위기와 건강 불평등 이론의 ‘잃어버린 거미’를 찾아서

지그문트 바우만(2013)은 2005년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해 “카트리나 자체가 인위적 산물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끼친 결과는 명백히 인위적 산물이었다.”고 말했다.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동차가 없거나, 병들고 오갈 데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캘리포니아 산불 화재 진압 때마다 부유층들은 보험사를 통해 별도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주 정부는 4,500명이 넘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동원해 시급 1달러를 주고 산불과 싸우게 했다(나오미 클라인, 2018). 2022년 여름 부유층이 밀집된 서울 강남

에서는 가난한 40대 도시 노동자 가족이 침수된 반지하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에 해당하는 파키스탄은 기후 재난으로 국토의 1/3을 잃었다. 2022년 12월 기준, 647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파키스탄 시민 1,739명 이상이 사망했다(유니세프, 2022). 기후 재난의 ‘부수적 희생자’는 사회 불평등의 ‘부수적 피해자’들이었다.

마르크스(2006)는 “자본주의 경제학은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면서도 그 사실을 해명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사유재산을 마치 인간 세계 외부의 낯선 힘에서 주어진 것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불평등이 발생하는 물질적 과정을 외적인, 우연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해 소외와 화폐 제도 사이의 본질적 연관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피할 수 있는데도 존재하는 건강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불의(不義) 다(마이클 마뮷, 2017).” 따라서 불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의의 문제를 찾는 건강 불평등 이론은 중요하다. 건강 불평등 연구들은 계급에 따른 질병 분포의 사회적 원인을 찾아왔다. 그러나 비판이론으로서 건강 불평등 연구들은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어디서 기원하는가, 그 원인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사실상 묻지 않아 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낮은 방향으로 흐르는 불의를 해결할 수 없으며 도전도 희망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저 주어진 조건의 불가피한 결과를 재증명하는 연구에 복무할 뿐이다.

질병 분포의 차이를 만드는 특권, 억압, 착취의 원인과 결과를 다층 면에서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회역학자 낸시 크리거(2018)는 건강 불평등을 없애고자 했던 건강이론이 ‘거미가 사라진 원인 망’ 그리기의 일부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불평등 이론은 현재의 불평등이 누구의 이익을 지켜주는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회피했고”, 부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기울이는 노력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공평한 접근을 주장하는 돈, 권력, 자원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를 묻지 않고 질병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낮은 소득’은 무엇으로부터 결정되는지는 관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평등할수록 모두에게 더 유익하다는 주장만이 남게 되었다(낸시 크리거, 2018).”

‘역학적 전환’ 독트린을 붕괴시킨 코로나19는 극명하게 불평등한 사망률을 증명했다. ‘살게 만드는 권력’이 곧 누군가는 ‘죽게 내버려 두는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평등해야 건강하다”라는 말은 “불평등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자본주의만이 제대로 작동하는 유일한 체제라고 여기는 믿음에 갇힌 사회적 상상력의 쇠퇴에 기인한다. ‘영원한 현재’라는 사회적 상상력의 후퇴는 집합적 사고역량의 쇠퇴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실패는 문제를 협소하게 보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리처드 레빈스(2009)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우리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보는 방식이 달라지면 예측의 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복합적 건강 위기는 단순히 현재(또는 과거)의 질병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환원주의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건강 위기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이며, 생태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체현된 진실(embodied truth)’이다. 이런 측면에서 크리거(2021)가 사회 변화를 통한 건강 정의 이론으로 제시하는 ‘생태사회이론(ecosocial theory)’은 전 지구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우리에게 사회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건강을 모든 수준의 사회와 생물이 서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얽히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건강을 사회 역사적 맥락과 분리하지 않으면서 더 작은 개체나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방법론을 통해 건강을 ‘계급 전체적 모습(class physiognomies)’으로 복원시킨다. 이러한 생태사회이론은 불의의 체제와

구조에 도전하는 힘이 그 내부 모순에 기초한다는 변증법적 행동역량과 집단으로의 계급 연대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현상 유지에 기여한다. 따라서 건강이론은 묻고, 알고 행동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사실은 그 자체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내포한 연구자의 선행가설과 지적 정직성의 문제, 취약한 개인과 집단은 작은 변화에도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슈말하우젠의 법칙’은 우리의 연구가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정당화하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크리거(2021)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노숙인의 건강 연구가 주택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과학적 인종주의와 우생학의 정당화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는 기후와 건강불평등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다.

모순에 내재하는 저항의 힘을 고려하지 않거나 억압과 착취의 관계를 회피함으로써 지배자들에게 수용되고 순응하기도 하는 주류 담론은 위기의 시대에는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 소수 ‘정책 구매자’들의 영향 아래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를 위한 과학, 즉 태어나고 노동하고 살고 번식하고 병에 걸리고 죽는, 자연과 인간 생태계로 통합시키는 건강 정의 이론이 필요한 이유다.

IV. 나가며: 나쁜 것들의 전통 속에서가 아니라 다른 세계의 가능성으로

기후 위기를 건강의 위기로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직 우리가 살아가야 할 최악의 세계는 아니라는 엄중한 역사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병든 채 감옥에 갇혀 파시즘의 잔혹한 시대를 마주하면서도 결코 패배주의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던 ‘의지의

낙관주의자' 그림시의 정념은 정의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이다. 아마르티아 센(2019)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움직이게 하는 힘은 완벽한 정의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잡을 수 있는 부정의가 존재하며 그것을 없애고 싶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사람들을 움직여 정의로운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알게 만드는 것은 그 가능성에 대한 도전과 참여를 통해 생겨난다. 증명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믿음은 사랑과 다르지 않다. 바로잡을 수 있는 불의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건강 정의 운동을 통해 우리는 불의의 근원을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사랑하게 되며, 이를 증명하고자 헌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착취와 소외로 고통받는 신체들의 전 지구적 저항에 연대함으로써 불완전하고 의존에 기초한 우리는 복수(複數)로서 '우리, 인민(people)'이 되어갈 수 있다. 기후 위기라는 생명의 위기 앞에 제한 없이 열려 있는 '공거(共居)의 윤리'를 통해 '혼종의 공동체'를 지향해 가는 것, 이것이 건강 정의이며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아닐까.

참고문헌

- 나오미 클라인, 2017(2018), 『노로는 충분치 않다』, 이순희 역, 파주: 열린책들.
- 낸시 크리거, 2011(2018), 『역학 이론과 맥락』, 신영전, 김유미, 이화영, 표준희, 신상수, 이호준 역, 파주: 한올아카데미.
- 마이크 데이비스, 2018(2020), 『인류세 시대의 맑스: 불평등과 생태 위기에 관하여』, 안민석 역, 파주: 창비.
- 마이클 마뫼, 2015(2017), 『건강 격차』, 김승진 역, 서울: 동녘.
- 레이첼 카슨, 1998(2018), 『잃어버린 숲』, 김홍욱 역, 서울: 에코리브르.
- 리처드 레빈스, 2000(2009), 『열한 번째 테제로 살아가기』, 박미형, 신영전, 전해진 역, 파주: 한올.
- 아마르티아 센, 2009(2019), 『정의의 아이디어』, 이규원 역, 서울: 지식의 날개.
- 유니세프, 2022년 12월 26일 검색. “파키스탄 홍수 피해 규모” 현황, <https://www.unicef.or.kr/what-we-do/news/159336>
- 조효제, 2020, 『탄소사회의 종말』, 파주: 21세기 북스.
- 존 벨라미 포스터, 2009(2010), 『생태 혁명』, 박종일 역, 고양: 인간사랑.
- 지그문트 바우만, 2011(2013), 『부수적 피해: 지구화 시대의 불평등』, 정일준 역, 서울: 민음사.
- 카를 마르크스, 1844(2006),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 강유원 역, 서울: 이론과실천.
- Berry, H.L., Bowen, K., & Kjellstrom, T., 2010, “Climate Change and Mental Health: A Causal Pathways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5(2), 123–32.
- Krieger, N., 2021, *Ecosocial Theory, Embodied Truths, and People’s Heal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s, R., & Lewontin, R., 2007, *The Dialectical Biologis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Romanello, M., McGushin, A., Di Napoli, C., Drummond, P., Hughes, N., Jamart, L., et al., 2021, “The 2021 report of the Lancet Countdown on health and climate change: Code red for a healthy future”. *The Lancet*, 398(10311), 1619–1662.

Climate Crisis and Health Inequality

: Possibility of Democracy for Health Justice

Hyejin Byeon*

Abstract

The climate crisis is becoming a health crisis, exacerbating social and structural contradictions that affect health. Growing climate disasters exacerbate health inequalities, with dramatically disproportionate impacts across regions and social classes. This article explains that health and environmental crises occurred in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and seeks a health justice theory to overcome the alienation of humans and nature. Health justice theory proposes to think of health as an issue that permeates all class relations in the changing capitalist system and calls for challenging the dichotomy that traps health within pre-determined social boundaries. In order to reveal the cause of structural inequality, it emphasizes the political nature of restoring the reality of the capital-spider that has disappeared from the health inequality discourse. The political nature of the health justice movement includes the possibility of multiple rights struggles by interdependent beings taking place around the globe, and aims for a hybrid community through the 'ethic of cohabitation'.

Keywords: Climate change, Health inequality, Health justice, Embodying inequality, Ecosocial theory, Cohabitation

*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unoccupy@gmail.com)